

# 싱글족 불편 덜어주니 돈이 보이네

### 1인 가구 확산에 청소·반찬·세탁 등 생활서비스 인기

### 광주 반찬 가맹점 확산...나주 청소업체 서비스신청 600건

‘싱글족’인 김진우(32)씨는 일반 직장인 들보다 퇴근시간이 늦어 따로 시간을 내 청소나 설거지를 한다는 게 여의치 않다. 주말에도 부족한 잠을 자느라 집안일은 미뤄두기 일쑤다. 집에서 밥을 차려먹는 것도 어렵다.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인데다, 혼자 먹을 양만 조리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김씨는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주 1회 청소대행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다”며 “국이나 반찬도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앱(APP)으로 주문해 먹고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의식주 모두 혼자 해결해야 하는 싱글족의 불편을 덜어주는 서비스로, 청소부터 반찬, 세탁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17일 광주지역 스타트업 ‘애니차스’에 따르면 집안청소 대행서비스 ‘단지이모’ 회원수가 최근 100가구를 넘어섰다.

애니차스 관계자는 “지난 10월 시험서비스 이후 반응이 좋아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월별이 밀집한 1인 가구 고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서비스의 경우 1회 2만~4만원 선에서 청소와 침구정리, 설거지, 욕실청소 등을 돕는 서비스다. 주 고객층은 혼자 사

는 직장인들이다.

기존 점포에서 구입하던 반찬도 이제 배달서비스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

‘집밥’과 ‘혼밥’ 열풍이 더해지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광주에도 ‘그밤에이반찬’이 6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생’과 ‘진이찬방’, ‘더찬’ 등 전국 프랜차이즈도 광주지역 아파트상가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밀반찬부터 국·찌개까지 선보이며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1인 가구는 물론, 맞벌이 가정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집에서 밀린 빨래를 하거나 세탁이 힘든 이불 등 싱글족을 위한 세탁서비스도 등장했다. 정장이나 셔츠, 코트, 등 드라이클리닝은 물론, 가정용 세탁기로는 어려웠던 대형세탁물도 건조까지 1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빨래를 마치고 보관이나 배달도 가능하다.

싱글족의 경우 원룸 같이 주거공간 자체가 좁아 건조를 하기가 어려웠던 탓에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세탁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싱글족을 위한 서비스는 나주 및 가평혁신도시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의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나주의 스타트업 ‘로컬비’의 경우 창업 2년 만에 혁신도시 내 청소서비스 신청건



반찬 주문

청소 대행

세탁 대행



수가 600건을 돌파했다. 창업 당시 전무했던 고객이 2년여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혁신도시의 경우 결혼해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의도치 않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1인 가구가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전무했던 청소대행과 반찬배달 등 생활편의형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이주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전체 공공기관 직원 6329명 중 2690명(42.5%)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석 JS건설 대표의 “1인 가구의 연령은 젊은 편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며 “앞으로는 배달이나 생활편의 서비스 같은 창업아이템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5.43 (-6.31)	금리 (국고채 3년) 2.23% (0.00)
↓ 코스닥 886.58 (-14.65)	↑ 환율 (USD) 1069.30원 (+6.60)



## 충장·금남로에 주거형 오피스텔

### 영무토건 280세대 중 98세대 분양...역세권·생활 편의 탁월

아파트 브랜드 ‘영무에다움’으로 알려진 영무토건이 주거형 오피스텔 부문의 새로운 브랜드 ‘영무파라드’를 선보인 다.

영무토건은 오는 19일 광주시 동구 충장·금남 생활권에 영무파라드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투시도>

공급규모는 지하 2층~지상 14층 총 280세대로 이 중 1차로 98세대를 분양한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25㎡부터 60㎡ 까지다.

영무파라드는 주변상권과 교통여건이 좋은 충장·금남 생활권 최적에 위치한 김남과와의 연계서비스로 문화센터 및 취미수업을 병행하며 카페, 요로, 도서관, 소모임, 호텔 이용 모두 입주민에게 할인 적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368-3900.

기존의 오피스텔과 차별화를 두기 위

한 노력도 상당하다. 개인 사물함과 톨클린서비스 제공, 가전렌탈 서비스, 무인택배 시스템, 옥상공원, 공구 및 카드대여, 스피드게이트, 기계식주차 등 다양한 서비스로 갖췄다.

여기에 입주객들의 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도 마련됐다. 태양광을 이용한 공용전기 분배시스템과 각종 자판기를 이용해 수익금을 공동관리비에 충당할 계획이다.

금남로 4구역과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또 주변 20m에 위치한 김남과와의 연계서비스로 문화센터 및 취미수업을 병행하며 카페, 요로, 도서관, 소모임, 호텔 이용 모두 입주민에게 할인 적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368-3900.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부모-자녀세대 고용률 격차 확대

### 지난해 20대~50대 17.6%P...남성은 여성보다 20.3%P 높아

고용시장의 노령화가 본격화하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고용률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통계청의 지난해 연간고용동향 발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20대와 50대의 고용률 격차가 17.6%포인트로 집계됐다. 2016년의 16.1%포인트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20대 고용률은 2016년 58.3%에서 2017년 57.8%로 0.5%포인트 감소한 반면, 50대 고용률은 74.4%에서 지난 해 75.4%로 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50대(50~59세)는 75.5%로, 자녀 세대인 20대(20~29세) 고용률 57.1%보다 18.4%포인트 높았다.

2016년 12월과 비교해도 ‘50대’와 ‘30대’는 고용률이 각각 1%포인트, 0.8%포인트 증가했고, 40대는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오히려 0.8%포인트 감

소했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 및 심화되는 구직난에 따른 고용 질벽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령대별 고용률은 40대가 79.4%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50대(75.4%), 30대(75.3%), 20대(57.8%), 60대 이상(39.9%) 등의 순이었다.

여성도 고용률은 남성과 비슷한 순서로 40대가 66.3%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0대(58.4%)와의 차이도 7.9%포인트였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에 차이를 보였는데, 1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30대 여성이 62.3%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고, 20대(63.6%), 50대(64.2%), 40대(67.4%)로 높아지는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성별 고용률은 남성이 71%로 여성(50.7%)보다 20.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김대성기자bigkim@

## 한전, 평창올림픽 ‘봄업’ 앞장

### 10개국 100여명 전력·에너지 유관인사 초청 투어 프로그램

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시호)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봄업 조성에 적극 나선다.

한전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력설비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9월 완료했으며 전국의 배려계중 약 1000여명을 초청해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10여 개국 100여명의 전력·에너지 유관 인사를 초청, 평창 올림픽 개막식 및 경기를 관람하고 전력 인프라를 견학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 함께 공기업 최초로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Tier1 등급)로 참여하게 돼 올림픽 행사 준비에도 적극 나선다. 전기자동차 150대를 올림픽 대회 기간 중 무상임

대 하고 급속충전기 26기를 지원해 온실 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환경 올림픽 개최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특히 개폐막식이 개최되는 올림픽플라자 내에 ‘한전·전력그룹사 홍보관’을 설치하고 전 세계 방문객들이 가상현실과 멀티미디어를 통해 미래의 스마트한 에너지시대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평창올림픽 대회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의 3000여 대의 한전 차량과 전기요금 청구서, 공용문서 및 각종 인쇄물에 응원 문구를 부착해 성공적인 올림픽 대회 분위기를 조성해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회사 인근 지역주민, 학생 등을 성화봉송 행사에 초대해 올림픽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 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